순천시 8월 한달간 세계유산축전 연다

유네스코 유산 선암사·갯벌 연계
다채로운 행사·체험 프로그램
미래세대와 가치 공유하고 경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승선교.

순천시가 오는 8월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 갯벌을 무대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 갯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湛)다'를 주제로 열리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암사와 자연유산 순천 갯벌이 가진 각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길을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은 8월 4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울림'을 주제로 하는 주제공연은 선암사에서 순천 갯벌로 이어지는 연결의 길을 통해 사람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 순천과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선포한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축전은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유산 속에 특별한 공간과 시간, 비움과 쉼을 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우선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향유를 위한 전시·공연 프로그램 및 전통 의식 재현행사, 산사 음식문화 체험 등이 마련된다.

쉼을 찾아가는 선암사의 '천년불심길'과 16㎞의 순천만 갈대길을 유산해설사·생태해설가와 함께 걷는 '갈대길 쉼 with 비움'을 통해 길을 걸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찾고, 보존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선암사의 괘불 봉안 의식 시연은 세계유산축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무형 문화 체험이 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를 찾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확산 프로그램들도 준비됐다. 세계유산 스탬프투어, 순천 세계유산 축전 스테이 등 세계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미래세대에게 유산의 가치 전달을 위한 '혜움 세계유산학교'는 초등학생 약 30명을 선정해 선암사와 순천 갯벌 일원 곳곳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우리 유산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축전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치를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 양수 발전소 유치 협력

김순호(앞줄 왼쪽 세번째) 구례군수와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올해 두 번째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회의를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김순호 구례군수가 위원장직을 민간에 넘겨주면서 김영민 위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구례군 양수 발전소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양수 발전소 신규 건립은 약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발전소 상주 인력은 100여명으로, 총 6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들은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 등을 검토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양수 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김영민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구례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학동에 개소

여수시 학동 생활문화센터에 들어선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지난 21일 개소식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이웃과 함께 아이를 기르자는 취지를 담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여수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시민 문화플랫폼 '생활문화센터'(학동) 2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을 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아이 돌봄 공간과 놀이 공간, 수유실, 사무 공간 등으로 꾸려졌다. 이곳에서는 아동·보호자가 함께 놀이를 즐기고 이용자들 간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가 위탁 운영하며, 여수시와 여성가족부가 운영비를 부담한다.

건물 개선 공사와 기자재 설치는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했다.

지난 2021년 국동에 문을 연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은 연평균 4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육아 경험·정보를 나누고 이웃 간 품앗이 활동 장소로도 활용되는 육아 공동체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수산자원 고갈 막는다"
고흥군 연안 어선 10척 감척

고흥군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 '연안·구획어업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4월 '연안·구획어업 감척 사업' 사업공고를 거쳐 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은 올해 감척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억 84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예산 범위 내 감척어선 척수를 조정해 감척할 예정이며 ▲연안 복합 5척 ▲연안자망 2척 ▲연안 통발 1척 ▲낭장망 2척 등 총 10척이 감척 대상이다.

감척 대상 어선에 대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선·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연안어업에 재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지급된 폐원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김규웅 보성군 부군수가 지난 21일 득량만·여자만 해역에서 포란 암컷 낙지를 방류하고 있다.

보성군, 득량만·여자만에 낙지 3000마리 방류

보성군이 지난 21일 낙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득량만·여자만 해역에 포란 암컷 낙지 3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암컷 낙지 방류 행사는 낙지목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지역 내 종묘배양장에서 낙지를 교접시켜 포란한 암컷 낙지를 금어기 시기에 맞춰 방류했다.

보성군은 2020년부터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만1000마리의 포란 암컷 낙지를 방류했다.

포란 암컷 낙지는 1마리당 100~160개의 알을 산란한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보성군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꼬막·감성돔·점농어·대하를, 내수면에는 뱀장어·은어·쏘가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곡성군이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4차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용역를 최종 검토했다.

회의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미래교육재단 전남과학대학교 청년단체 등 구성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착수한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B등급 16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곡성군은 2024년에는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 등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취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발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며 "군민 행복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